



전남 무안엔 6월이면 마늘, 양파 여름농사건이로 한창 바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량이 떨어져 시세가 좋은 편인데, 양파 20kg (한망)이 도매상인에게 1만5백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안군 현경면 평산4리에서 밭 4천평에 양파농사를 짓고 있는 이정순(43)씨는 새벽 6시에 나와 어둑어둑해져야 집으로 향한다. 냉장실에 저장한 양파(6개월에서 1년보관)를 한 묶음씩 나누는 일을 하느라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김은희 기자

외국 저질문화 유입대책 세워야

미국 음란잡지 한국어판 발행추진계기 시민단체 연대

1994.6.25

가정·성의 순결왜곡, 공동체 파괴 부추겨 백해무익

경실련·기윤실·서울Y 등 72개단체 공동성명

텔리뷰처(대표 오규정)라는 국내 기업체가 미국의 성인용 음란잡지인 '펜트하우스'의 한국어판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를 적극 저지하고 나섰다.

경실련, 기윤실, 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 서울YMCA, 서울YWCA 등 72개 단체들로 구성된 '음란퇴폐조장 외국문화와 잡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단(손봉호 외 5인)은 지난 17일 오후 공보처 오인한 장관을 방문, '펜트하우스' 등록허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정부는 개방화에 따른 외국저질 문화의 유입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간행물의 발행이 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록 사항이지만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라고 출판매체의 책임을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명백히 어긋나고 미성년자보호법과 형법은 청소년에 유해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도서의 제작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설적 포르노 잡지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가정과 성의 순결을 왜곡시키고 사회공동체의 파괴를 부추기는 백해무익한 외설적인 음란잡지를 국제화 개방화를 명목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국회는 외국 저질문화 유입에 대비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언론과 시민들은 이에 대한 감시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장관은 "현행 정기간행물법상 이들 음란성 잡지의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들이 계속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론을 환기시켜 줄 것"을 당부하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 잡지과의 황주연씨는 "일단 서류상의 미비점을 들어 허가를 미루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내세워 신청인 스스로 등록을 포기할 것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참가한 단체들은 "최근 음란화보집이 급증하면서 시장도 넓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가 펜트하우스 수입배경"이라고 지적한 뒤 "음란물의 주 고객이 10대-20대의 젊은층"이라면서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90년대 들어 일부 선정적인 주간·월간 잡지들이 검찰의 지속적인 음란폭력물 단속과 잡지협회 차원의 자정 결의 등에 따라 대부분 자취를 감춘 대신 최근 2-3년새 음란성 화보집이 크게 늘었다는 게 출판계의 분석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심의한 결과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최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간행물 윤리위의 '제재건의' 건수가 주·월간 잡지는 92년 27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줄어 들었으나 화보집은 지난해 9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5월말 현재 10건을 돌파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보집 출판사는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해 또 화보집을 낼 수 있어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고 윤리위 관계자는 지적한다.

윤리위 권용철 심의부장은 "2-3년 전만해도 10종 미만이던 화보집이 지금은 70여종으로 늘어난 상태"라며 "이들 화보집들은 서점을 통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화보집들은 시장에 나오면 얼마 안가 금세 매진된다고 권부장은 전한다.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공동대책위원회 권장희 실무간사는 "음란물들은 미성년자보호법과 형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 개개인

들도 사회정의의 위해 음란물에 대한 고발정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음란퇴폐조장 외국문화와 잡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겨레사랑운동시민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실련기청협, 국민의식개혁운동본부, 국민정신개혁운동시민회, 국제시민봉사회, 국제연합한국학생협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교사모임, 낮은올타리,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대한기독교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불교청소년교회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도산사상연구회, 돈보스코청소년센터, 민족의 명예를 생각하는 모임, MRA한국본부,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 범국민운동본부, 서울YMCA(한명섭), 서울YWCA(김인자), 세계대학봉사회, 예수전도단, 여성민우회, 원불교중앙청년회, 유도회총본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장로회연합회, 전국직장선교연합회, 전국직업여성한국연맹, 정의로운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지방의정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천도교동학민족통일회, 청소년선교회,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학생신앙운동,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선도연맹,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대학교회, 한국기독교의사회, 한국기독교학생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정교회연구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어린이재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청소년선도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모음회, 흥사단 등 72개단체.